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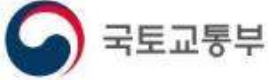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18. 4. 23.(월) / 총 4매(본문 4)
			
담당 부서	4차위 지원단 기술산업팀	담 당 자	·과장 황희정, 사무관 권지희 ·☎ (02)750-4720, 47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과장 정영길, 사무관 성창원, 주무관 이병수 ·☎ (02)2110-2157, 2855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이정희, 사무관 정재원, 주무관 이승학 ·☎ (044)201-4971, 4973
보 도 일 시		2018년 4월 24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3.(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뇌 공학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가 국가 스마트시티 만든다.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이끌 혁신 마스터플래너(MP)로 정재승 KAIST 교수(세종),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부산) 추천
- ◆ '21년까지 국가 시범도시를 주도적으로 이끌 총괄 감독 역할,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사람 중심과 거주민 편익 증대' 강조

- 정부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뇌 공학자, 스타트업 육성 기업가 등 창의적인 혁신 인재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본격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이끌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 이하 'MP')로 세종에는 정재승 교수(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부산에는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XnTree) 대표를 각각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 선정된 MP는 국가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전반을 이끌어 나가게 되며, 입주시점(21년~)까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된다.
- 특히, 과거 신도시 개발에 있어 도시계획 전문가가 MP를 맡고 사업 시행자의 자문 역할을 해오던 것과는 달리, 과학기술 / 민간기업 전문가가 MP를 맡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범도시의 혁신성을 더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MP로 추천된 정재승 교수는 인문학적 이해에 기반한 뇌 공학자로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리더'로 선정될 만큼의 역량과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 특히 스마트시티의 근간이 되는 4차산업혁명 분야의 전문가로서, 뇌 과학 분야와 건축, 인공지능(AI) 등 색다른 분야와의 융·복합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미래 스마트시티가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新기술 접목과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똑똑한 도시'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정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에서 500개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웨이팡시 샤산 생태지구*에서,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래너(MP)로도 작년부턴 활동하고 있다.
- * 뇌질환·심혈관 질환에 걸린 노인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술, 인공지능, 뇌공학, 신경건축학 등)을 활용한 플랫폼으로 조성 계획

- 세종 MP에 추천된 정교수는 “세종시를 스타트업들이 찾아와 스마트 기술을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 세종은 앞으로 행복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 한편, 부산 에코델타시티 MP로 추천된 천재원 대표는 현재 엑센트리(XnTree) 영국 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다.
 - 엑센트리는 스마트시티·핀테크 분야의 세계적인 오픈테크 클러스터인 영국 레벨39(Level39)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서, 스마트시티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투자를 운영하는 영국투자기업이다. 천재원 대표는 엑센트리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하여서는 런던 Canary Wharf 금융지구의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ognicity’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14~’16년)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서울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및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자문을 맡아 왔다.
 - 또한 현재 부산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부산 도시계획과 주제설정,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 해외진출에 대한 자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MP로 추천된 천대표는 “과거 뉴타운이나 U-City 등은 도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도시 건설과 개발을 통한 대기업과 기득권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 결국 실패한 것으로,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 위주의 개발이 아닌, 철저히 사람이 주축이 되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결합해 실거주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의 개념이 해당 도시의 특색과 문화, 직업, 교육, 교통 등을 담은 4차산업 기반의 ‘융합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인구와 유입인구가 상생하는 생활생태계와 국내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몰려오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경우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스타트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천재원 대표의 경력과 리더십이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혁신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켜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및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 관계자는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기존의 도시개발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담아내고자 하며, 이번에 추천된 MP는 이러한 시범도시의 취지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책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MP와 사업시행자가 관계부처·학계·민간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시범도시가 시민과 기업 중심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미래도시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권지희 사무관(02-750-47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과 성장원 사무관(02-2110-2157),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정재원 사무관(☎ 044-201-497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